

2020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온라인 시상식

2020 Jeonju International Awards for
Promo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line Ceremony



2020. 9. 18. **금요일**

20:30 한국 (GMT +9:00)

11:30
부르키나파소
(GMT)

06:30
멕시코, 멕시코시티
(GMT -7:00)



18:30
베트남
(GMT +7:00)

9월 18일 (금) 저녁 8시 30분,
2020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Jeonju City



▶ CICS IN KOREA

2020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온라인 시상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0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은

온라인 공간 YouTube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보호에서 모범을 보여 주고,
공동체 활성화에 공헌한 아사마(부르키나 파소), 히우 덕 뷰(베트남),
엔지오 임팩토(멕시코)에게 상이 수여됩니다.

우리 모두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증진에
노력해 온 수상자들의 노고와 불굴의 정신을 치하하고,
응원하는데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전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시상식에 초대합니다!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20시 30분,
시상식은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 1 유튜브 채널명 '전주시', 'CICS IN KOREA' 검색
- 2 채널 실시간 방송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 클릭
- 3 시상식 시청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발굴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사회적 결속 및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국제적인 공동체 발전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개

이 대상은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보호 활동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공동체 활성화에 공헌을 한 개인·단체·지역 공동체·기관·비정부기구(NGO) 등에게 수여됩니다. 전주시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증진에 노력해 온 공로자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노고와 불굴의 정신을 치하하고자 합니다. 2019년 첫발을 내디딘 이 뜻 깊은 상이 국제적인 신망을 얻어 권위 있는 상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의의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가 마련한 국제적인 상입니다.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 전승·보호·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인 전주시가 앞장서서 이 뜻 깊은 상을 제정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유독 무형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한 문화도시로, 도시의 정체성을 오래된 전통에 바탕을 둔 창조성 즉, 범고창신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신도 같은 맥락입니다.

전주시가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제정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분야에 또 다른 획을 그었습니다. 국가·민족·종교·젠더의 경계를 뛰어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헌신해 온 사람들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상징성이 큰 상과 상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방 도시인 전주가 중심이 되어, 지구촌의 화합과 인류문화의 창달,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전주는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통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저 낡고 낙후된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무형의 유산을 디지털 헤리티지로 끌어 올려 스마트시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전주시는 첨단 과학기술시대에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일찌감치 깨닫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2019년 첫발을 디딘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후보 지원자들의 지리적 분포도 오대양 육대주에 고르게 퍼져 있어서 지구촌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전주시는 이 상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 활동에 공헌한 많은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합니다. 망망대해 외로이 항해하던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단체, 관계자들의 희망의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이들의 손을 잡고 희망을 노래하고 전 지구촌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화답할 것입니다.

개회사



무형의 유산을 귀하게 지켜온 전통문화도시, 전주에서 펼쳐지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주는 오랜 시간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이어져 온 정신과 숨씨, 무형의 문화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한옥, 한지, 한식, 판소리까지 전주가 지켜온 자산은, 전주라는 도시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국을 발견합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세계 곳곳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데 공헌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도 27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수 많은 분들이 있어 우리의 곁에 무형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을 아끼는 마음을 모아 제정한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무형유산의 가치를 공유하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통문화도시이자 무형문화유산의 도시 전주 또한 무형문화의 계승·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지키고 가치를 공유하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영사



2020년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무형문화재의 물질 문화를 수집하고 전시하여 소수 민족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서시는 히우 덕 뷰(HIEU DUC VU)님, 현대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사라져가는 부르키나 파소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사마(ASAMA),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로 치아파스 지역의 사회적 결속 강화에 온 힘을 다하는 엔지오 임팩토(NGO IMPACTO)의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신 분들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형유산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인류가 끊임없는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문화적 소산입니다. 공동체나 개인이 쉽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 자연, 역사와 상호작용하며 얻은 경험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배금주의(拜金主義)가 횡행하는 현대사회에 물질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인류의 역사와 경험의 집약체인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한껏 빛내는 오늘과 같은 자리는 물질만을 쫓는 사회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주시가 세계무형유산의 모범적인 보호 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전주시의회 역시 전주시가 무형문화유산의 중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 준비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사를 주최한 (사)무형문화재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

축사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이 올해로 2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로부터 39개의 단체 혹은 개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형유산분야의 국제 저명인사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들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신 베트남의 히우 덕 뉘뎀, 부르키나 파소의 아사마 보존회 그리고 멕시코의 NGO 임팩토 단체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정부는 1962년 부터 산업화·서구화·도시화로 인해 급격히 사라져가는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전통문화를 지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41년 뒤 유네스코는 글로벌화 되가는 세계에서 각국의 전통문화가 급속히 사라져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무형문화유산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Heritage)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정책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1993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각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무형유산보호제도인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s)제도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 점,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상인 “아리랑상”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수여한 점 등 이 외에도 많은 관심을 베풀어왔습니다.

전주시가 세계무형유산대상을 제정하게 된 것은 여러모로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의 무형유산분야의 정신을 계승하여 세계무형유산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뜻깊은 것은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은 국가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됐다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정신은 지역공동체에 있고, 국가보다는 각 자치단체가 무형문화유산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욱 가치 있는 일이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의 정신과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한국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무형유산보호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 상을 제정하신 김승수 전주시장님과 전주시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전 유네스코 무형유산 선정 국제심사위원 **임동희**

수상자



아사마 | 부르키나 파소

ASAMA



아사마(ASAMA)는 부르키나 파소의 전통 가면 보존회이다. 부르키나 파소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급속도로 변화했고, 그 영향으로 전통 가면과 그 문화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를 걱정하는 학생들이 1995년 아사마를 설립했다.



아사마는 가면에 담긴 부르키나 파소 사람들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이와 관련된 무형의 유산을 사회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1996년 부르키나 파소 정부에 의해 비영리 단체로 공식 인가를 받았다. 아사마는 2012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NGO로 인가 받아 국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2019-2022년에는 평가기관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아사마는 아프리카 가면의 전통을 보존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년마다 두구지역에서 가면과 예술의 국제 페스티벌 (FESTIMA)을 개최하여 전통가면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아사마는 부르키나 파소의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개인,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히우덕뷰 | 베트남 Hieu Duc Vu



히우 덕 뷰는 ‘몽족 문화 공간 박물관(Museum of Muong Cultural Space)’의 관장이다. 몽족은 베트남 산악지대에 생활하고 있는 소수 민족이다. 몽족 문화 공간 박물관은 몽족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생활사와 의례를 주제로 전시하고 있다. 몽족의 전통 공연을 기획하여 대중들에게 사라져 가는 몽족의 전통을 널리 알리고 있다. 소수 민족 보호 문제는 베트남에서 가장 민감한 정치문제이다. 히우 덕 뷰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라져 가는 몽족의 전통문화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베트남 사회에 강력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히우 덕 뷰는 베트남 주류사회에서 소외받는 소수민족의 문화를 숭선수범하여 보전하는데 앞장선 용기, 희생, 박애 정신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엔지오 임팩토 | 멕시코 Impacto



임팩토(Impacto)는 '시민 협회(Asociación Civil)'라는 뜻으로, 2012년 멕시코 치아파스(Chiapas)의 산 크리스토팔 드 라스 카사스(San Cristóbal de Las Casas)에 설립되었다. 임팩토는 치아파스지역을 시작으로 멕시코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임팩토의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늘려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임팩토는 치아파스의 하이랜드(Highlands)지역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직조기술을 가진 장인들과 함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전문직조기술자를 양성하고 있다. 실제 이들이 만든 공예품은 지역 시장에 판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양성 평등, 전통적인 직조 기술과 모티프의 저작권 보호,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수단이다. 임팩토는 지역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성 평등 및 사회적 의사소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임팩토는 2015년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창조적 민속 예술 도시 지정을 받았다.

프로그램

시간 온라인 시상식

20:30~ 개회사 | 김승수 전주시장

환영사 |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축사 | 임든희 대한민국학술원회원 / 전 유네스코 무형유산 선정 국제심사위원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경과보고 | 함한희 무형문화연구원장

시상식 | 시상_ 김승수 전주시장

수상자 부르키나 파소_ 아사마

베트남_ 히우 덕 뷰

멕시코_ 엔지오 임팩토

폐회식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상패 헌정



이의식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3호 옷칠장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옷칠장 보유자 이의식은 장인정신을 발휘하여 2019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만의 특별한 상패를 제작하였습니다. 상패는 잣나무라고도 불리는 홍송으로 제작하여 몇 대에 전해져도 뒤틀림 없이 온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흙, 돌, 옷 등 자연에서 얻은 색으로 상패를 칠하고, 나전으로 장식하였습니다. 그의 예술혼을 발휘하여 탄생한 상패는 이곳 전주,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무형문화유산을 밝히는 영롱한 빛으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약력

1991년	전라북도 전통공예인협회 초대회장 역임
1999년	대한민국 신지식인에 선정
2006년	전라북도 자랑스런 전북인 '문화장'수상
2013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겸임교수

전시

2008년	이의식 건칠전 (헤이리 마을내 리오 갤러리)
2008년	일본 교토문화박물관 이의식 칠예전
2014 ~ 2015년	「한국 나전칠기 근현대작가 33인전」 한국나전칠기박물관 (재)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2018년	<한국공예의 법고창신2018> 밀라노 트리엔날레 뮤지엄

**전주세계무형유산대상 사무국
(사)무형문화연구원**

주소 | (우)5489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285, 별관 1층 무형문화연구원


전화 | 063-277-4098 팩스 | 063-277-4097 메일 | cics.center@gmail.com

홈페이지 | www.jiapich.org / ichngo.net

무형문화연구원 홈페이지 | www.cics.center

주최 한바탕 전주

주관  CICS 무형문화연구원

 Linc+ 전북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단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
Research Center for Intangible Heritage and Information